

[국제]

北 핵 포기·남북관계 정상화 물꼬 틀까

■ 27일 평양서 제 20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막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20차 장관급 회담은 북핵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7개월만에 열리는 본격적인 남북대화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남북대화가 남북 간 교류협력력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북한의 6자회담 '2·13합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종국에는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행운행, 남북국방장관회담 등 양자간 문제는 물론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협의하겠다는 생각이다.

남북 모두 관계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회담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편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입장이 엇갈리는 부

분이 적지않아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있다.

◇인도적 사안=대북지원과 이산가족상봉이 있다. 대북지원이 북측이 원하는 것이라면 남북자·국군포로문제까지 포함한 이산가족상봉은 상대적으로 남측이 기대하는 이슈다.

7개월만에 협상...관심 집중

북측은 회담에서 우선 작년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쌀·비료 지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남측도 '2·13합의'로 핵문제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지원을 주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양이다. 북측이 올해 지원분에 더해 작년 유보분을 함께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유보된 규모는 쌀이 50만t이고 무상지원되는 비료는 10만t이다.

대북지원 재개와 맞물려 작년 하반기 중단됐던 이산가족상봉 행사도 자연스럽게 합의될 전망이다.

◇경제협력 사안=작년 5월말 예정됐던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로 무산된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행운행이 가장 큰 관심이다.

당시 군부의 반대로 시행운행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핵문제 진전에서 보듯 군부의 강경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면 전격 합의도 기대해 볼만 하다. 열차 시행운행이 이뤄진다면 이를 전제 조건으로 합의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도 가능해진다.

작년 6월 경험위에서 합의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남측이 의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달러 여치를 유상 제공하면 북측이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클링커, 지하자원개발권, 생산물처분권 등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사관련 사안=군 관련 이슈를 장관급 회담에서 직접 다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군사회담 재개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

회담에서는 장성급회담 재개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2000년 1차례 열린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는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도 협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면 장성급회담 등에서 첨예하게 맞섰던 이슈인 북한한계선 문제는 물론 군사 핫라인 설치를 포함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군사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 및 평화체제=정부는 최근 베이

세부입장 엇갈려 낙관은 금물

징 6자회담에서 이뤄진 '2·13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북측에 당부할 계획이다.

장관급회담이 '피겨 회담'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고 6자회담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남측은 이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정부는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24일 오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네번째 정찰위성인 레이더 2호와 실험용 광학위성을 탑재한 H-2A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다. /AP=연합뉴스

日 정찰위성 또 발사...한반도 정밀 감시

일본이 24일 오후 정찰위성 '레이더 2호'의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모두 4대의 정찰위성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을 실시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후 북한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도입을 결정한 이후 당초 계획보다 3년 늦게 4기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일본은 이로써 그동안 미국의 상업

위성이나 미군 첩보 위성 등에 의존해온 북한 등에 대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감시망을 확립했다는 점에 지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새 위성에 대한 3개월간의 가능 점검을 거쳐 올 여름부터 4기의 정찰위성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지구촌 어디든지 1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 하루 최소한 1번 이상 촬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쿄=연합뉴스



潘총장-IAEA 사무총장 기자회견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왼쪽)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비엔나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FP=연합뉴스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내달 訪北

北서 초창-2·13합의 역할 주목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타결된 지 열흘 만에 북한이 국제적으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초청함에 따라 '2·13 합의'의 이행 과정에서 IAEA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의보다는 이행이 더욱 중요한 사항이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IAEA를 통한 사찰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핵 포기를 위한 초기 조치를 이행하는 지 여부가 이번 6자회담 합의의 기본 조건이며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재가동할 것임을 밝힌 것은 IAEA 사찰 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IAEA 수장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 사찰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과 협의하게 된 것은 핵 합의 IAEA 사찰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핵 합의 이행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엘바라데이 총장의 방북은 3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IAEA 이사회가 끝난 후인 3월 둘째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연합뉴스

송민순 외교 "남·북정상회담, 아직은 시기상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있으나 충분한 여건이 됐다고 보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방영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 "무엇을 합의할 것이냐에 대한 실재가 분명해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현재(정상회담과 관련) 계획되고 있는 것이 없으며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해 협의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북한과 관련국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

고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 때 핵폐기가 훨씬 가속될 것"이라며 "동전의 양면적 성격인 핵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의 긴 과정은 같이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언급, "평화체제 논의는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전제 아래 이뤄질 것"이라며 "평화체제를 수립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위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北, 父子 권력세습 안한다”

군부 중심 집단지도체제로 방향 잡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후계구도와 관련, 부자 권력세습을 3대째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집단지도체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베이징(北京)의 외교 소식통들은 25일 "김 위원장이 과거 장남인 정남씨를 후계자로 꼽았으나 상황이 악화되자 몇 년 전부터 마음을 바꿔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자 3대 권력세습은

더 이상 명분이 없어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도 반대경향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제전에 실패할 경우 3대 전부가 매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아 외국어는 물론 국제정세에도 정통한 김정남(36)은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정치에 일체 간여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정남은 최근 베이징에서 지인들과 만나 "경제가 재건되지 않으면 최고 지도부가 무슨 욕을 들어먹을 지 모른다"면서 "후계자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지켜봐 안한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집단지도체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시범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징=연합뉴스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과정·관리자과정 신입생모집

새로운 혁신과 자치시대를 지역의 최고 리더들이 열어갑니다
여러분께 새로운 학습과 연대의 장을 제공합니다

■ 행정대학원 제11기 최고정책과정

- 모집인원: 40명 내외
- 수강기간: 1년 중 24강좌(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전 형 료: 50,000원(광주은행/074-107-002565, 예금주/행정대원수입공무원)
- 모집대상: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상임위원이상), 판사, 검사(부장 이상) 및 변호사(판·검사 경력 10년이상), 4급이상의 고급 공무원, 대령이상의 각군의 간부, 국장이상의 언론인, 공기업체의 장 또는 임원(이사이상)
- 원서교부 및 접수처: 2007. 2. 행정대학원 행정실(법과대학 3층)
- 면접일시 및 장소: 2007. 2. 21(수)~2007. 2. 23(금) 개별면접,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법203호실
- 합격자발표: 2007. 2. 26(월)~3. 2(금) 사이에 개별통지

■ 행정대학원 제39기 관리자과정

- 모집인원: 50명 내외
- 수강기간: 1년(2007. 3. 1~2008. 2. 28), 주1일(하루2시간), 매주 화요일 야간강의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전 형 료: 30,000원(광주은행/074-107-002565, 예금주/행정대원수입공무원)
- 모집대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각급공무원과 군장교 및 사회단체의 지도자, 각 기관과 주요기업체의 임직원, 기타 행정대학원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입학지원서 및 접수: 2007. 2. 행정대학원 행정실(법과대학 3층)
- 면접일시: 수시면접 (행정대학원 법203호실)
- 합격자발표: 면접일시 후 5일 이내 개별통보 및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전화: (062)530-2207, 2282
팩스: (062)530-2209
우편접수처: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동동 300

http://gsa.chonnam.ac.kr

취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 전남과학대학!!

대졸자(전문대이상) 특혜입학생 모집

입시상담전화 1588-5051
http://www.chonnam-c.ac.kr

○ 모집기간: 2007.3.9(금)까지 접수

학과	모집인원	상담전화	상담교수
간호과	4명	011-601-3233	박미화
치위생과	6명	016-603-8312	문상은
작업치료과	5명	010-4642-5352	이진중
사회복지과	7명	016-625-5254	정미자
유아교육과	6명	011-610-9626	박애자

대학졸업자로서 본대학 입학 시 특혜

- 재입학 장학금 지급
- 타 대학 졸업학점 인정에 따른 수업료 감면혜택과 수업부담감소

자격증 취득

- 국가자격증 이외 다양한 자격증 취득 집중지도 (경락마사지, 노인상담, 노인케어, 심폐소생술, 원예치료, 미술치료 등)

★ 일반학과 추가모집상담: 입시홍보처 061-360-5050~1

세종로 앞서는 전남과학대학 CHUNNAM TECHNO COLLEGE

교정직특채

3월 1일 개강

시험예정일	6월경(예상)-2006년에는 6월18일			
시험과목	형사소송법/교정학(객관식필기)			
모집인원	900여명(예상)			
응시연령	1966. 1. 1. ~1987.12.31. (男군근무연도추가계산)			
신체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장: 남자 165cm, 여자 154cm 이상 체 중: 남자 55kg, 여자 48kg 이상인 자 흉 위: 신장의 1/2이상인 자 시 력: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이상 색 신: 색맹이 아닌 자 			
	아간반 (19:00~22:00)		주말반	
강의시간표	목	형사소송법	토	교정학개론
	금	교정학개론	일	형사소송법

2월 8일 19:00에 시험오리엔테이션 있음

국비 지원 EBS노랑진 ALL STAR 강사진 출강

공인중개사(주/야)

주택관리사(야간)

2월 무료

메가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26-5050